

이집트 박물관의 보물: 고대 이집트, 시간의 베일을 걷다

이번 전시는 홍콩고궁박물관과 이집트 국가유물최고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박물관의 전략 파트너인 중국은행(홍콩)이 지원합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7,000년 이상 전, 아프리카 북동부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약 3,000년경 통일을 이루고, 고왕국 시기(기원전 약 2686~2160년)를 거치며 파라오 통치 체제와 다신교 신앙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중왕국(기원전 약 2034~1650)에서 예술·문학·행정이 성숙했으며, 신왕국(기원전 약 1550~1069)에 이르러 융합과 변화 속에서 서서히 절정에 올랐습니다. 기원전 12세기부터 헬레니즘-로마 시대(기원전 332~서기 395)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 지중해 세계를 포함한 주변 문명과 교류하고 통합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집트의 7개 주요 박물관과 사카라 유적지에서 온 걸작 250점을 선보입니다. 조각과 부조, 석비, 금장신구, 미라관과 동물 미라까지, 다양한 유물을 네 개의 주제로 엮어 약 5,000년에 걸친 문명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망합니다. “파라오의 땅”, “투탕카멘의 세계”, “사카라의 비밀”, “고대 이집트와 세계”라는 주제를 따라가다 보면, 고대 이집트 문명이 꽃피운 정치, 예술, 일상, 종교가 하나의 세계를 이룹니다. 또한 사카라 지역에서 새롭게 밝혀진 최신 고고학적 발견과 함께 고대 이집트가 세계 여러 문명과 활발히 교류를 나누는 장면도 소개합니다.

전시 후원은 캐세이와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카이로 이집트박물관, 후르가다박물관, 수에즈국립박물관, 룩소르 고대이집트미술관, 소하그국립박물관, 마트루흐박물관, 카프르 엘세이크박물관, 사카라 유적지에서 온 귀한 유물과 더불어, 홍콩고궁박물관과 홍콩중문대학 미술관 소장품도 함께 전시합니다.

제1부 파라오의 땅

파라오 시대(기원전 약 3000~332)는 약 3,000년간 왕조가 통치하며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시기입니다. 강력한 파라오가 세운 거대한 석상과 기념비는 지금까지 남아서 당시 왕권의 신성함을 증언합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자연을 경외하고 세심하게 관찰하여 방대한 신앙 체계로 승화시켰으며, 오시리스·이시스·호루스의 신화에는 세계의 창조와 정치 질서에 대한 고대인의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인이 신념처럼 품었던 명제는 영원한 내세였습니다. 그 믿음은 채색 목관, 장례용 파피루스, 부적(호신부) 같은 장례용품에 담긴 형식과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식기, 의복, 가구, 이동 수단 등 일상 유물은 고대 이집트인이 먹고, 입고, 살고, 이동했던 흔적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자기 모습도 남겼습니다. 다양한 사회 계층을 형상화한 조각상을 보면, 고도로 위계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던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제2부 투탕카멘의 세계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재위 기원전 약 1336~1327)은 오랫동안 신비에 가려진 존재였습니다. 제18왕조 말기(기원전 약 1550~1295) 복잡하고 격동적인 국면 속에 즉위하였고, 후대 통치자들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워버리는 바람에 소년의 이름은 3,000년 가까이 잊혔습니다. 그러나 1922년 왕릉이 발굴되면서 마치 미래에 담았던 영원처럼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다른 파라오의 왕릉에 비해 규모는 다소 소박하지만, 온전해 가까운 상태로 발견된 귀한 유적으로, 그 이름을 보면 바로 떠오르는 금 가면을 포함하여 수천 점의 희귀한 보물이 출토되었습니다.

투탕카멘과 가족을 묘사한 조각상을 보면 당시는 분명 정치·종교적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술과 공예가 전례 없이 번성하여 금세공, 파이앙스, 가구, 회화, 조각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작품이 탄생하였습니다.

제3부 사카라의 비밀

“망자의 도시”라는 사카라는 현재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 부근에 있으며, 고대 이집트 최초의 수도 멤피스의 핵심 묘역입니다. 길이 약 6km, 너비 약 1.5km에 달하는 대지에 제3왕조부터 제13왕조(기원전 약 2686~1649)에 속하는 왕과 왕비의 피라미드가 20기 이상이며,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인 조세르(재위 기원전 약 2686~2667)의 계단형 피라미드도 이곳에 있습니다. 사카라는 왕족과 상류층의 무덤군 사이로 수많은 신전이 병존하는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넓은 신성한 동물 묘역(네크로폴리스)에는 수백만 구에 달하는 동물 미라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사카라에서의 고고학 발굴은 그 성과가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정교하게 채색된 인체형 미라관을 비롯해 중요한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후기(기원전 667~332) 북부 이집트의 장례 의식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제4부 고대 이집트와 세계

고대 이집트 문명은 언제나 다른 문명과 교류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특히 헬레니즘-로마 시대(기원전 332~서기 395)에는 지중해 세계를 비롯한 주변 문명과의 문화 교류가 크게 확산하여, 언어·신앙·예술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섞이는 새로운 양식과 미감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으로 이집트 고유 문명은 한층 풍성해지면서 지중해 전역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전시는 고대 중국과 이집트의 유물을 나란히 배치해 위대한 문명이 동시대에 피워 올린 찬란한 성과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 세기에 걸친 이집트 고고학의 역사 위에 최근 중국과 이집트가 고고학 조사와 문화유산 연구·보존에 손을 합친 이야기도 들려드립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해석이 오늘날의 국제 협력 협력과 기술에 힘입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